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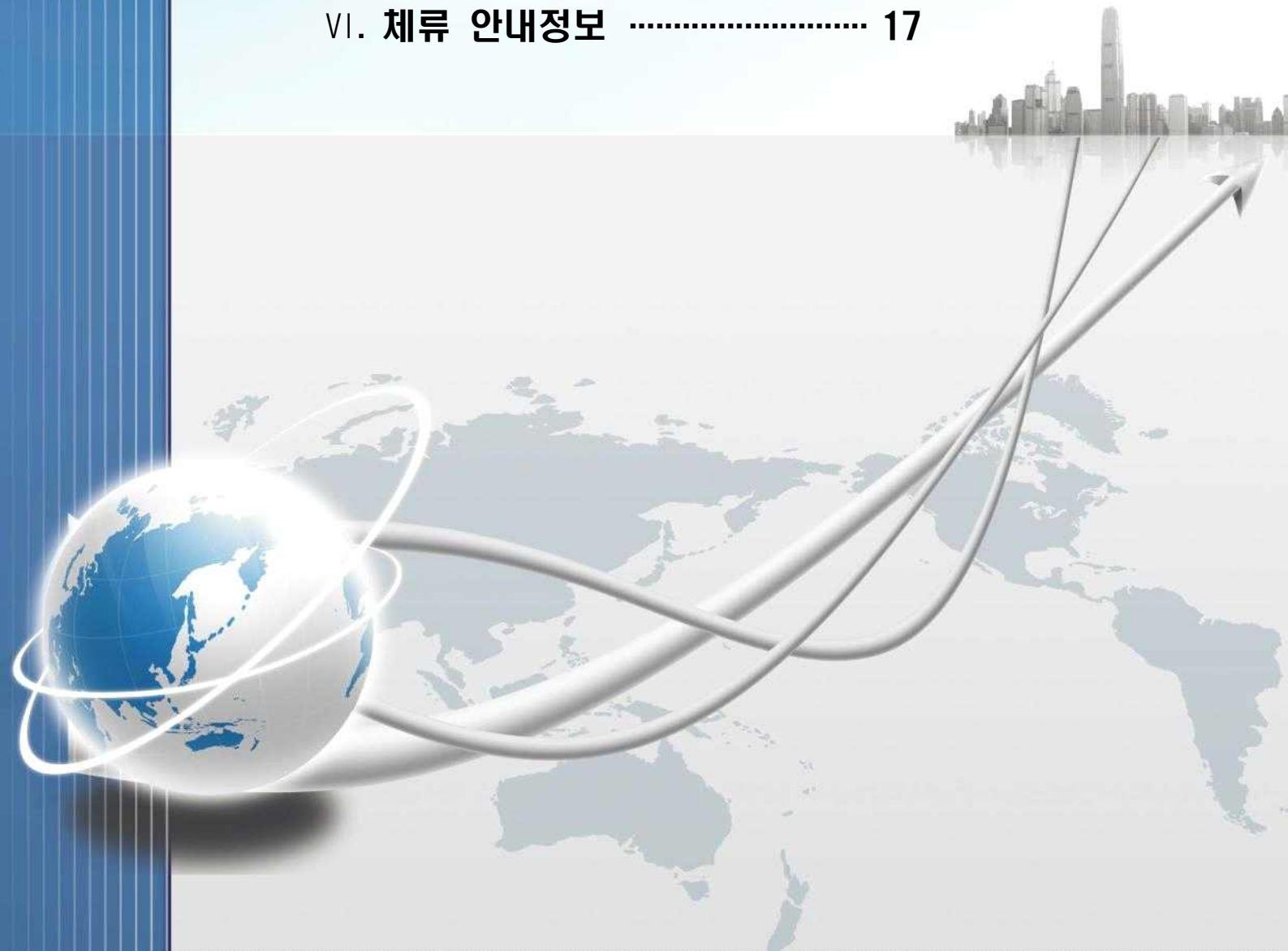


해외출장 가이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출장자료

【 목 차 】

I. 크로아티아 개황	01
II. 크로아티아 역사 개관	03
III. 시장특성 및 상관습	04
IV. 최근 경제 및 교역 동향	06
V. 크로아티아 투자환경	14
VI. 체류 안내정보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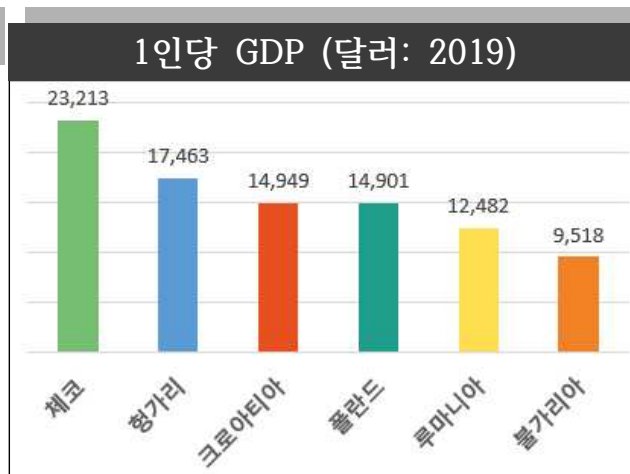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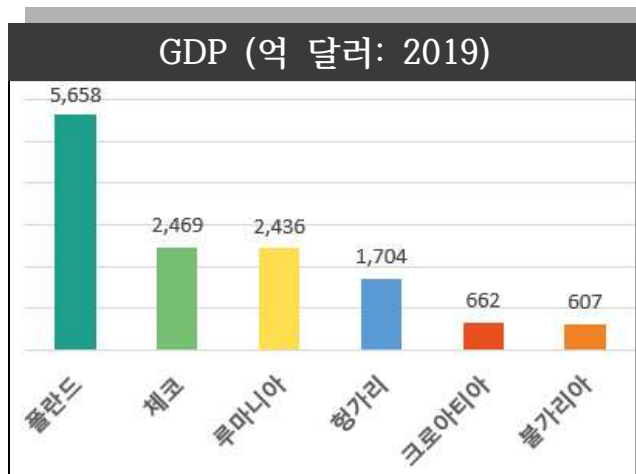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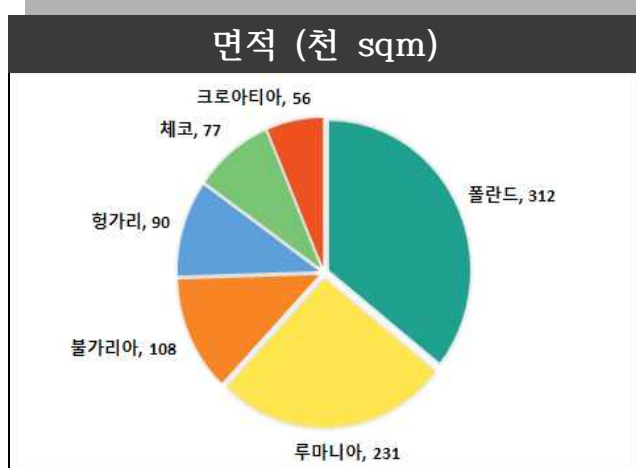


I. 크로아티아 개황

-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 해안에 인접한 관광 국가로 수도 자그레브 동쪽에 위치한 슬라보니아 평원 농업지대와 북부 및 중부의 산악지대, 그리고 아드리아 해안 지역으로 구분 가능
- 1991년에 구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을 선언한 후 세르비아계 분리주의자와의 내전을 겪었으며 95년 미국의 전쟁개입과 데이턴 협정으로 종전
- 사회주의로부터의 체제전환 및 독립 이후 친서방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7월 1일 EU에 28번째 회원국으로 정식가입, 2020년 상반기 EU 의장국

- 국 명 : 크로아티아 공화국 (Republic of Croatia)
- 면 적 : 56,594 km² (한반도의 1/4, 남한의 1/2 규모)
- 기 후 : 지중해성(해안), 대륙성(내륙)
- 인 구 : 약 410만 명
- 수 도 : 자그레브(Zagreb)
- 정치형태: 의원내각제
 - 대통령 (국가수반) : 조란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사회당)
 - 수상 (정부수반) :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크로아티아 민주연합)
- 주요도시 : Zagreb(80만 명), Split (18만 명), Rijeka(13만 명)
- 민 족 : 남슬라브 민족에 속하는 크로아티아인(90.4%), 세르비아인(4.4%)
- 언 어 : 세르보-크로아티아어 (라틴문자 사용)
 - * 인근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에서 통용
 - * 슬로베니아어, 마케도니아어와는 같은 언어군이나 일상적 소통은 곤란
- 종 교 : 가톨릭(86.3%), 정교(4.4%), 이슬람교(1.5%)
- 건국(독립)일 : 1991.6.25 (구유고 연방으로부터 독립)
- 화폐단위 : Kuna (HRK) (1 US\$=6.48 Kuna, 1 EUR=7.55 Kuna)
 - * 1kn=180원상당

<크로아티아 경제규모>



※ 자료원 : Eurostat, IMF

< 2019년 구 유고연방 국가 경제 규모 >

구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코소보	합계 및 평균
인구(백만)	4.076	2.080	6.96	3.49	0.622	1.80	19.028
GDP(US\$ 십억)	60.7	54.2	51.5	21.0	5.4	7.99	175.26
1인당 GDP(US\$)	14,950	26,170	7,398	6,000	8,704	4,442	11,277.33
1인당 GDP (US\$ at PPP)	27,728	38,462	18,564	14,894	20,084	12,322	22,009.00
평균임금(gross, US\$)	1,328	1,995	777	811.9	862	482	1,042.65

※ 자료원 : IMF, UNECE



II. 크로아티아 역사 개관

1. 정착 및 국가 형성 (4세기~10세기)

- 4세기부터 서로마 제국의 혼란을 계기로 슬라브족의 이주 및 정착 시작
 - 현재 보스니아를 경계로 서쪽은 서로마제국 영향 아래의 가톨릭 국가로, 동쪽 지역 기타 발칸국가들은 동로마제국의 영향으로 정교 국가로 발전함.
- 10세기 들어 최초의 크로아티아 왕국 건설

2. 외세지배 하의 크로아티아 (12세기~20세기)

- 크로아티아는 당시 주변 강대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베네치아 등으로부터 침략과 지배를 겪음
- 16세기 오토만 제국의 유럽 침략으로 이슬람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어 발칸 국가는 가톨릭, 정교, 이슬람 등 3개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
- 1918년 1차 대전 직후 크로아티아 의회는 1918년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으로부터 분리선언
 - 세르비아 중심의 통합국가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 (1929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개칭)에 가담

3. 20세기 이후 : 유고슬라비아 시절과 독립 (20세기 이후)

-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에 티토가 이끄는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에 편입되어 공산 독재체제가 1980년 티토의 사망 시까지 지속
 - 냉전 붕괴 시기인 1989년에는 민족주의 열풍이 확산하면서 급격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
- 1990년 봄 크로아티아의 자유선거 시행으로 투즈만의 크로아티아 민주연합 (HDZ)이 승리, 1991년에 독립 선언 이후 내전에 직면
 - 1995년 데이턴(Dayton)협정으로 내전이 종식되고 오늘날의 평화체제 정착



III. 시장특성 및 상관습

1. 시장특성

- **(소규모 시장)** 분리독립 후 구유고슬라비아가 보유하고 있던 규모의 경제 효과를 잃으면서 시장규모 축소
 - 높은 소매상 마진, 부가가치세(25%)로 인해 시급한 생필품이나 식품이외에는 인근 지역에서 여행 시 구매하는 성향도 강함.
 - 그러나 구유고부터 이어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에이전트가 수입시장을 주도하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시장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 **(유럽의 안마당)** 구유고연방 분리국가*와 밀접한 상권을 유지하면서 이태리,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국가와의 교역 활발
 - * 구유고 연방 국가 :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코소보 등 총 7개국
 - 대부분의 공산품은 소규모 수시오더 가능성, 신속한 딜리버리, A/S 및 마케팅 지원 가능성 등으로 인해 인근 서유럽국가로부터 수입
 - 유럽에 현지법인, 물류창고나 지사가 있는 공급업체 선호
 - 한국산, 일본산 가전제품의 경우 대부분 유럽 내 공장, 중국, 동남아 등 간접 경로를 통해 수입
- **(소비시장)** 조선, 무기 등을 중심으로 일부 전략제조업 분야가 존재하나, 관광 산업이 가장 활발하여 전반적으로는 제조시장보다는 소비시장의 특성이 강함.
 - 관광(GDP의 약 20%), 식품, 의약, 정유, 조선
- **(대형유통망 확대)** 식품은 토종 기업인 Konzum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비식료품 분야는 외국자본인 InterSpar, Metro, Billa, DM 등의 대형유통망이 확대되는 경향
 - 일반 소비재의 경우 대형유통망을 통한 진출 필요
- **(소비성향)** 과거 독립전쟁에 따른 경기침체, 실질소득 격감 등으로 구매력이 크게 위축되어 저가품 위주의 구매성향이 강함.
 - 하지만, 유명 브랜드 선망의식도 있어, 저가품과 고가품의 양극화 현상을 보임.



2. 상관습과 현지 민심

- 크로아티아인들은 문화적 자존심이 상당히 높아 크로아티아가 소련 주도 하의 동구권(Eastern Bloc), 발칸 국가(Balkan Countries)로 분류되는 것을 싫어하며 **중남부 유럽(Central Europe) 국가로 인식되는 것을 선호**
 - 상거래 혹은 협상 중 크로아티아를 발칸 국가, 동구권 국가라고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시장규모가 적어 소량 주문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구매습관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최소 주문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다품종 소량 주문에 적극적으로 응하면서 거래개시 필요
 - 물류창고를 설치하거나 혹은 동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바이어 모색 필요
 - 크로아티아 비즈니스맨의 경우, 전반적으로 신실한 편이나 **업무처리/의사결정 속도가 느린 관계로 거래 성사를 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
 - 지급조건 관련, 일람불 신용장 방식만 고집하지 말고 신용을 쌓아 T/T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크로아티아인의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상담 시 각종 스포츠 관련 화제를 시작으로 대화를 풀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
 - 특히 축구에 대한 인기와 관심도가 높은 편이며, 이외에 핸드볼, 농구 등의 단체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
- * Luka Modric(레알 마드리드), Mario Mandzukic(유벤투스), Ivan Rakitic(바르셀로나) 등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 주축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활동 중

3. 한국에 대한 인지도

- 크로아티아 국민 대다수가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인지도와 국가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편
 - 현대, 기아 등 한국 자동차의 2018년 점유율은 8.2% 이며, 핸드폰은 삼성 Galaxy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TV 등 한국산 가전제품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산 품질 관련 높은 인지도 형성에 기여
 -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경험에 대한 선망의식이 있으며,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한국기업 투자유치 등에 관심

IV. 최근 경제 및 교역 동향

1. 개 요

□ 경제동향

-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 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 및 중동부 유럽의 물류 기지화를 추진 중
- 91~95년까지의 독립전쟁에 따른 제조업 퇴보 및 국가분할로 인한 시장 상실로 경제 규모가 크게 위축됐으며, 비효율성·관료주의 등 과거 사회주의 시절의 비합리적 관행 잔존
-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2009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겪었으며, 이 같은 추세는 2014년까지 지속하였으나, 2015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2019년까지 2~3%대의 성장세를 이어감
- 그러나 IMF에 따르면 2020년 COVID-19 여파로 인해 올해 GDP 성장률은 - 9%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 크로아티아 정부의 다각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시급한 상황임
 - 10% 이상의 실업률과 GDP의 4%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크로아티아 정부는 2차에 걸쳐 55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 정책을 발표
 - 또한 EU는 경기 부양을 위해 올 해 6월 긴급 지원 자금 1조 8천 500억 유로를 편성, 이 중 100억 유로를 크로아티아에 지급할 예정

□ 2020년 경제전망

- IMF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당초 경제전망치인 2.7% 대비 대폭 하향 조정된 - 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높은 서비스산업 의존도(GDP의 30% 이상 차지)가 경제 하락의 결정적



역할

- 여름 휴가철 집중되는 관광업 회복이 올 해에는 불투명 할 것으로 보여, 크로아티아 정부는 동 부문에서 약 60% 이상의 매출감소 전망
- 이에 따라 유럽 평균 - 6.7%, 동유럽 평균 - 5.4%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

<크로아티아 2020년 경제성장률 수정 내역>

(단위: %)

구분	2019년 전망	2020년 4월 전망	
		2020	2021
경제성장률	2.7	-9.0	4.9
실업률	8.0	11.5	8.0
GDP대비 경상수지	1.0	-4.0	-1.5
인플레이션율*	1.2	1.3	1.2

주: 평균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자료: IMF(2020.4.12.)

- 경제 회복에 있어 EU의 경기부양 자금 활용 및 크로아티아 정부의 자체 경기부양정책 등이 올 하반기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 크로아티아 정부는 올 3월부터 4월까지 1,2차에 걸쳐 총 55억 유로를 투입하여, 고용주세 납부유예, 고용유지를 위한 급여 보전, 기업의 운영자금 대출 및 대출금 상환 유예 등의 정책 추진
 -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EU로부터 100억 유로를 지원받아, 올해 12월까지 상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임
- 유럽 전반의 경기침체로 인해 크로아티아 경기 회복 시점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특히 코로나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본 이탈리아의 회복 여부가 크로아티아 경제의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최대 교역국(수출 1위, 수입 2위)로 금융, 보험, 유통 및 숙박업 등 서비스 분야에 폭넓게 진출

2.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GDP(백만 유로)	44,640	46,640	49,118	51,654	53,969
GDP 성장률(%)	2.4	3.5	3.1	2.7	2.9
1인당 GDP(유로)	10,619	11,174	11,907	12,632	13,270
외채(백만 유로)	48,230	44,714	43,683	42,170	40,877
외환보유고(백만 유로)	13,707	13,514	15,706	17,438	18,560
실업률(%, ILO)	16.2	13.1	11.2	8.4	6.6
물가상승률(%)	-0.5	-1.1	1.1	1.5	0.8
외국인투자 (Net Incurrence of liabilities, 백만 유로)	7.9	372.4	528.5	1,001.6	1,237.6
평균임금(월/EUR)	996.73	1,025.70	1,072.06	1,138.91	1,214.0
환율(HRK/EUR)	7.6350	7.5578	7.5136	7.4176	7.4426

※ 자료원 :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및 통계청

3. 크로아티아 대외무역 동향

- 2013년 EU가입 이후, EU 자금을 활용한 제조업 강화, 외국 생산 시설 유치 및 인프라 투자로 인해 교역 규모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임
 - 지난 5년간 의료용품, 자동차 및 부품 분야의 수출 증가세 뚜렷
 - 전기차 분야에서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
 - 수입부문에 있어서도 완제품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기타 품목은 연평균 수입액을 유지

<크로아티아 연도별 수출입 실적>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US\$백만)	13,836	12,930	13,813	16,074	17,401	17,381
수입(US\$백만)	22,810	20,579	21,905	24,837	28,203	28,026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2019년 크로아티아의 무역 규모는 453억 달러. 이중 수출의 60% 이상, 수입의 70% 이상이 EU 국가와 이뤄지고 있음.
- 특히 독일(65억 달러), 이탈리아(62억 달러), 슬로베니아(50억 달러)와의 교역이 전체 교역의 약 40%에 육박
- 크로아티아의 수출액은 2019년 173억 달러였으며 전년 대비 0.12% 감소하였음.
- 주요 수출국은 이태리, 독일, 슬로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순
- 주요 수출품목 : 광물성 연료(9.5%), 기계류(8.3%), 전기제품(8.2%), 의료용품(7.8%) 등

<주요 수출 품목>

(단위:US\$백만)

품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광물성연료, 에너지	1,925	1,435	1,297	1,709	1,853	1,657
보일러, 기계류	1,350	1,224	1,254	1,371	1,479	1,442
전기기기, TV, VTR	1,109	1,020	1,224	1,362	1,433	1,435
의료용품	520	573	927	1,276	1,057	1,358
목재류	840	756	792	866	972	924
자동차 및 부품	344	390	513	643	812	972
의류(편물제)	571	505	492	534	578	575
철강제품	431	416	428	520	573	571
알루미늄과 그 제품	.21	276	304	482	517	542
가구	541	518	550	524	497	480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 크로아티아의 2019년도 총수입액은 2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음.
- 주요 수입국은 독일, 이태리, 슬로베니아, 헝가리, 오스트리아 순
- 주요 수입품목 : 광물성연료(12.2%), 기계류(9.6%), 차량(8.6%), 전기제품(7.7%), 의료용품(5.0%) 등

<주요 수입 품목>

(단위:US\$백만)

품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광물성연료, 에너지	4,234	3,117	2,681	3,289	3,811	3,430
보일러, 기계류	2,052	1,895	2,154	2,429	2,643	2,685
자동차 및 부품	1,241	1,235	1,571	1,853	2,293	2,415
전기기기, TV, VTR	1,656	1,618	1,735	1,962	2,279	2,168
의료용품	853	839	1,267	1,134	1,307	1,412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006	943	980	1,059	1,222	1,198
의류(편물제)	673	591	607	677	777	759
철강제품	569	528	569	651	728	784
철강	591	536	526	607	709	662
광학기기 사진기 의료	386	394	451	666	691	568

※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4. 한국-크로아티아 간 교역 동향

☐ 우리나라의 대 크로아티아 수출입 현황

- 2018년 : 양국 간 교역량 약 2억 7천만 달러

<한국-크로아티아 간 수출입 추이>

(단위:US\$백만)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월
수출	300	448	328	241	241	37
수입	10	13	16	19	27	11
무역수지	290	435	312	222	214	26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최근 교역 동향 및 특징

-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의 교역 규모는 2019년 기준 2.7억 달러
 - 2020년 5월까지의 교역규모는 4천 8백만 달러 규모로, 수출은 약 73%감소, 수입은 약 60% 증가
 - 2013년 최저치 기록 이후 크로아티아의 EU 가입과 같은 경기 호재에 따라 양국 간 교역은 증가세로 반전했으나, 호황을 보였던 의약품 수출의 둔화, 2017년 선박대금 결제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교역량은 3년 연속 감소 중
 - 우리나라는 인근 유럽국가, 중국, 동남아 현지 공장을 통해 많은 간접수출 (약 5억 불)을 하고 있음.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디스트리뷰터 등
 - 우리나라의 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출 품목은 의약품, 승용차, 합성수지, 전기장판 등임.
 - 크로아티아 내에 한국산 복제약 디스트리뷰터가 위치하여 그 동안 의약품 수출이 활기를 띄었으나, 최근 감소 추세를 이어감
 - 자동차의 경우, 국내 생산 대형 SUV 및 승용차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133% 수출이 증가함
- * 전자제품, 핸드폰, 자동차의 경우 현지 또는 제3국 생산에 따라 비중이 작게 나옴.

<한국의 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출품목>

(단위:US\$천)

순위	MTI	품목명	2018년		2019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1	2262	의약품	166,571	-2.1	124,606	-25.2
2	7411	승용차	15,796	35.5	36,802	133.0
3	2140	합성수지	15,039	49.9	13,150	-12.6
4	6135	전기장판	4,179	26.1	6,073	45.3
5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3,933	223.1	1,790	-54.5
6	8352	축전지	2	-99.3	5,817	313,151.0
7	8492	배전 부분품	18	47,375	5,595	31,749.9
8	2150	합성고무	585	673	4,025	587.8
9	7901	기타기계류	263	13.4	3,019	1,046.7
10	6212	알루미늄가공품	0	0	2,791	0.0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2019년 크로아티아로부터의 수입은 약 2천 6백만 달러 수준으로, 단기 수입 품목이 다수를 차지하여, 연도별 수입 품목 변화폭이 매우 높음
- 2018년 대비 약 41.1%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배전 부분품, 주단강 및 용접기 등 일부 품목의 단기 수입이 급증하였기 때문임

<한국의 대 크로아티아 주요 수입품목>

(단위 : US 천\$)

순위	MTI	품목명	2018년		2019년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1	7111	원동기	2,268	7,140.5	3,958	74.5
2	6222	동조가공품	0	0.0	2,052	0
3	8492	배전 부분품	5	-88.2	2,033	41,341.9



순위	MTI	품목명	2018년		2019년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4	6171	주단강	0	0.0	2,020	6,517,280.6
5	4411	편직제의류	1,183	19.2	1,698	43.6
6	8333	축전기	1,563	8.7	1,612	3.1
7	7262	용접기	2	443.1	1,218	68,887.6
8	5142	취미오락기구	783	4944.8	1,204	53.9
9	0411	참치	197	-38.2	916	365.2
10	2289	기타 정밀 화학원료	671	80.6	885	32.0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 향후 한·크 무역 전망 및 시사점

- 크로아티아 소비자들은 한국산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등에 대하여 품질, 디자인 등에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향후 한국산 제품의 시장진출은 계속 확대될 여지가 많음.
-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유럽 내 물류기지 공동 사용을 통한 신속한 딜리버리 체계 구축, CE Mark 및 크로아티아 인증획득, A/S지원 등에서 유럽 공급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수출 유망분야 : 의약품원료, 화장품, 전자의료기기, 합성수지, 강판 등
- 또한 향후 EU 추가확대에 대비한 투자지역 다변화와 구유고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크로아티아나 구유고지역에 현지 공장설립이나 물류기지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더 나아가 크로아티아는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정에 착수하고 있어, 우리 업계의 투자 진출 시 다양한 인센티브 수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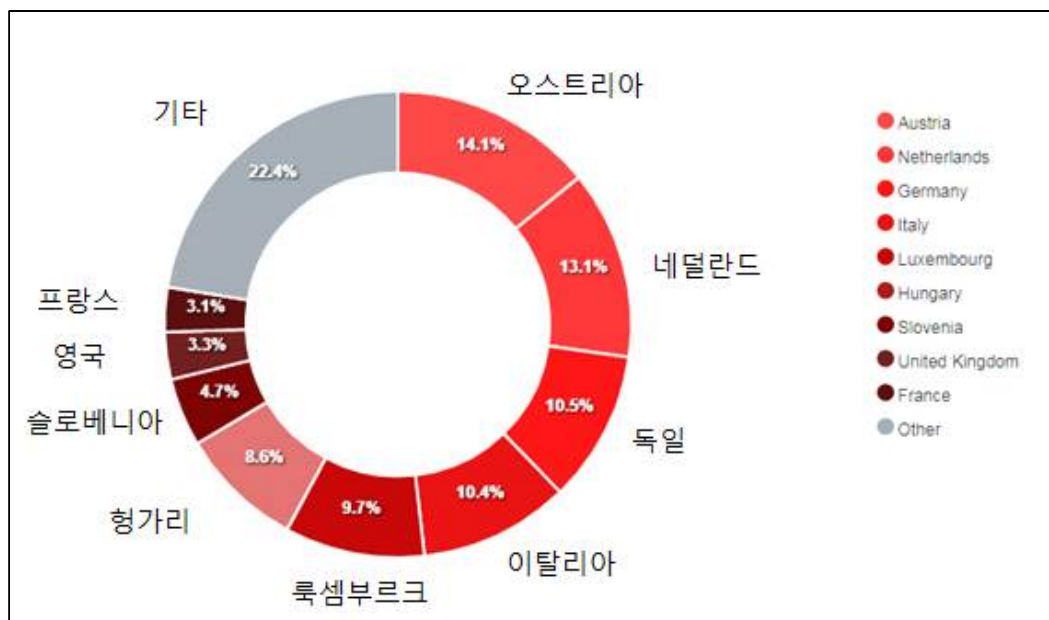


V. 크로아티아 투자환경

1.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 크로아티아의 외국인 투자유치액은 1993년부터 2019년까지 총 317억 9천만 유로
 - 2019년 투자유치액은 12억 3천 7백만 유로이며 전년 대비 18.9% 증가
 - 주요 투자국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등 인근 EU 국가로 전체의 88%를 차지
 - 최근 중국이 펠예사츠 다리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함과 함께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전면적인 투자확대를 예고
 -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이 지난 해 현지 전기차 생산기업 리마츠(Rimac Automobili)사에 8천만 유로 투자

< 외국인직접투자 주요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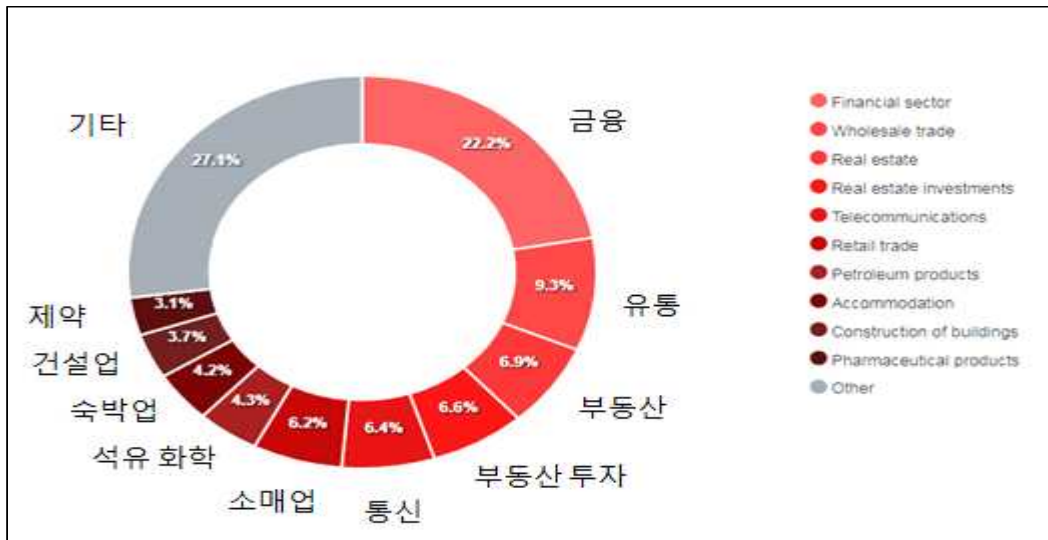


자료원: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 금융(22.2%), 유통(9.3%), 부동산(13.5%), 통신(6.6%)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50%를 육박



< 분야별 투자 내역 >



자료원: 크로아티아 중앙은행

- 주요 외국인 투자형태는 여타 동구권 국가와는 달리 그린필드 투자유치가 저조하지만,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지분투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91년부터 약 5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그린필드 투자 유치 기회 상실
- 동 기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에 우리 기업 진출

2. 투자대상지로서의 장단점

- **(EU 및 동구시장 접근 용이)** 2013년 7월 EU에 가입하면서 EU 및 동구시장 접근이 용이하며 구유고연방국가(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뿐 아니라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에 차량 및 철도로 쉽게 접근 가능
- **(양질의 인력 및 낮은 기업운영비)** 문맹률이 0.8%에 불과하고, 40세 이하 인구의 77%가 영어구사 가능하며,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운영비 부과 (사무실임대료, 전기, 가스, 상수도 등)
- **(협소한 내수시장)** 인구 411만 명의 소국으로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주변국 및 유럽 인근 국가 동시 진출 필요



- (관료주의, 사법체계의 낙후성) 과거 사회주의 잔재가 많이 남아 정부의 관료주의, 부정부패, 낮은 법률변경, 허가절차 지연 등의 장애요소 인지 필요
- (높은 세금체계 및 복잡성) 25%의 높은 부가세는 크로아티아 자국 내 기업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법인세는 18%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윤에 대한 과실송금 또는 주식배당 시 12%의 원천징수세를 추가로 부담하여 세금이 높은 수준

다. 한국의 대 크로아티아 투자는 이제 시작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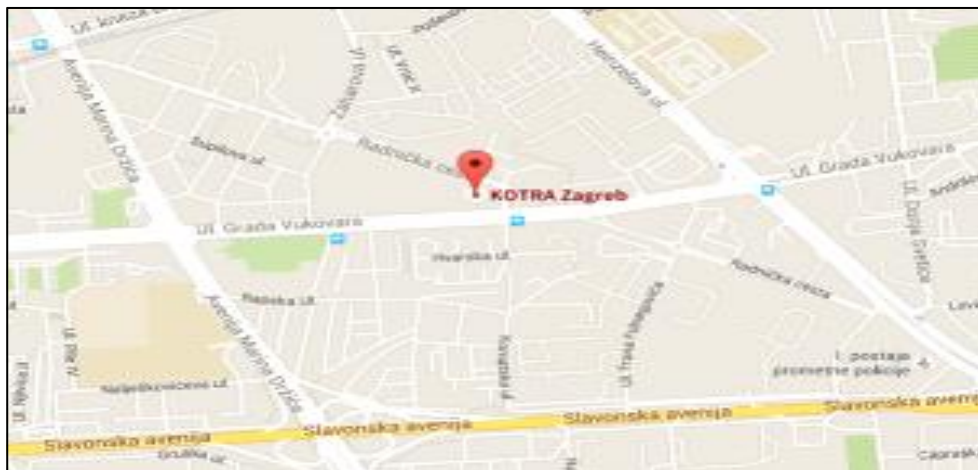
- 크로아티아에 대한 한국기업의 직접 투자는 삼성전자 판매법인(구유고연방관할)과 현대기아차 그룹의 현지기업 지분 투자가 유일할 정도로 한국기업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
- 한국관광객 증가에 따른 개인 차원의 숙박 및 요식업 투자 다수

VI. 체류 안내정보

1. 주요 연락처

대 상	연 락 처	비 고
자그레브 무역관	TEL : (385-1) 4815-101 FAX : (385-1) 4818-821 E-mail : kotrazag@kotra.or.kr	자그레브 내에서 전화 시에는 1을 누를 필요 없이 7자리 숫자만 사용
박은아 관장	Cell: (385-91) 530-5451	
이지택 과장	Cell: (385-91) 133-4555	
콜택시	UBER(핸드폰 어플 이용), 1212	
한국대사관	(385-1) 482-1282	박정현 부영사

※ 무역관 오시는 길



주소: Radnička cesta 52/VIII (그린골드 빌딩 R2 8층)

근무시간: 월-금요일 08:30-17:00

○ 위치

- 자그레브무역관은 최근 신규 오피스 단지가 밀집되고 있는 라드니치카 체스타 (Radnička cesta) 거리에 있으며, 자그레브공항에서 약 15km 거리에 있으며 택시, 또는 버스를 통해 방문 가능



○ 방법

- (택시 이용) UBER 어플을 통해 택시를 부르면 약 100쿠나(한화: 1만 7천 원)로 도착가능, 그린골드 빌딩(Green Gold)를 안내하면 어렵지 않게 찾아올 수 있음. 대부분의 택시 기사는 영어 소통 가능. UBER 이용이 어려울 시는 공항 청사 앞 택시를 200쿠나(한화: 3만 4천 원)에 이용가능.
- (버스 이용) 공항버스를 이용(30쿠나)하여 자그레브 시내 종점(Central Bus Terminal)에서 하차,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

※ 대사관

○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Ksaverska cesta 111/A-B, 10000 Zagreb, Croatia
- 전화: (385-1) 482-1282
- Email: croatia@mofa.go.kr
-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hr-ko/index.do>

2. 현지 날씨

- 한국의 사계절과 매우 유사하나 여름에 건조하고, 겨울에 습한 특징을 보임.
- 여름 평균 기온 : 최저 15℃, 최고 26℃
겨울 평균 기온 : 최저 -3℃, 최고 7℃

3. 간단한 현지회화

- 아침 인사 : Dobro Jutro 도브로 유뜨로
- 낮 인사 : Dobar Dan 도바르 단
- 저녁 인사 : Dobro Vecer 도브로 베체
- 고맙습니다 : Hvala 흐발라
- 네/아니요 : Da 다/ Ne 네
- 얼마입니까? : Koliko Kosta 콜리꼬 코슈타?
- Please, (Excuse me!) : Molim Vas 몰림 바스
- 좋습니다 : Dobro 도브로
- 미안합니다 : Oprostite 오쁘로스티테
- 헤어질 때 인사 : Dobidjenja 도비제냐



4. 체류시 유용한 정보

- 긴급상황 시 연락번호
 - 긴급상황신고 및 구조요청(통합): 112
 - 경찰: 192, 화재: 193, 도로교통사고: 1987
 - 응급의료 및 병원정보(구급차 요청): 194
- 젊은 층과는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으나 영어간판, 영어안내문 등은 없음.
 - 중장년층의 경우, 영어 구사가 안되는 경우가 많음.
- 현지 교민은 대사관, 코트라, 삼성법인, 유학생 등을 포함하여 약 180명 정도임.
- 한국식당과 한국식품점도 운영하고 있음

상호	주소	연락처	비고
크로케이(Cro.K)	Pod Zidom 4	(385-1) 4819-525	한식당
엄마식당(Omma)	Unska Ulica 2B	(385-99) 467 0701	한식당
한인마트(Korean Mart)	Radićeva ul. 14	-	한국식품점

- 치안은 매우 양호한 편이며 소매치기나 관광객 상대 범죄는 거의 없음.
- 환전
 - 은행 및 시내 환전소를 통해 가능하며, 은행과 환전소의 수수료 차이가 사실상 없음.
 - 현지 환전소 간판명은 'MJENJACNICA'임.
- 약국 : 녹색 십자가와 함께 Ljekarna라고 표기되어 있는 곳이 약국임.
- 대중교통
 - 트램(전차) :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30분 이하 1회 탑승요금은 4KN, 60분은 7KN, 90분은 10KN이며, 시간 내에는 환승도 가능함. 정류장 주변의 신문가판대(iNovine나 Tisak)에서 승차권 구매 가능함. 트램(전차)내 운전기사로부터 티켓구매도 가능하나 티켓 가격이 6KN/10KN/15KN로 더 비쌈.
 - 택시이용 : UBER* **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콜택시를 부르거나 (전화번호: 1212) 호텔앞이나 거리에서 빈 택시가 있으면 바로 탑승가능. 기본요금은 19KN (약 3,800원)이며 1km당 7KN (1,400원)씩 가산됨. 한국보다는 택시가격이 다소 비싼 편임.

* UBER app 다운로드 링크 : [Playstore\(안드로이드\)](#), [Appstore\(아이폰\)](#)

** 한국 신용카드 등록후 사용가능



- 식수 : 현지인들은 수돗물을 직접 마시기는 하나, 석회석이 다량 함유된 경수로서 생수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 국제전화사용
 - 한국에 전화 시 : 00-82(국가번호)-지역번호-전화번호
 - 수신자 부담전화 시 : 지역번호없이 901를 누르면 한국 측과 연결해 주는 교환원과 연결되며 국가명, 전화번호, 수신자(상대방) 이름을 알려 주면 수신자부담으로 연결해 줌.
- 한국과의 시차
 - GMT+1로 한국보다 8시간 늦음.
 - 3월 마지막 주 일요일~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동안은 서머타임을 실시하여, 7시간 늦음.
- 쇼핑
 - 시내 및 시 외곽에 백화점, 쇼핑몰, 기타상점이 있어 필요한 물품은 불편함 없이 구매 가능
 - 개점시간: 통상 월-금 10:00~20:00(토요일에는 오후 1시 또는 3시경에 폐점)

5. 관광 정보

- 크로아티아는 남동유럽의 대표적 관광지
 - 대표적인 관광 도시로는 스플리트, 두브로브닉 등
 - 1979년 유네스코는 두브로브닉 올드타운, 스플리트의 디오클레티안 궁전, 호수공원으로 유명한 플리트비체 공원을 세계문화유산 리스트에 등재
- 자그레브 관광지로는 성 스테판 성당, 성 마르코 교회, 성 카테리네 교회 그리고 자그레브의 중심가인 트르그 바나 엘라취츠 광장이 있음.

< 주요 관광지 >



<성 스테판 성당(Kaptol)>

12세기경 창건된 이후 1242년에는 몽골리안의 침입이 있었고 1880년에는 지진이 발생하여 여러 번 수난을 당한 건물임. 108m의 쌍둥이 첨탑은 19세기 후반에 네오고딕 양식으로 올려졌고 사원의 분위기는 바로크 양식을 취하고 있음.



<성 마르코 교회>

시내의 중심에 있는 건물이며 교회의 지붕을 보면 화려한 모자이크로 왼쪽의 휘장은 크로아티아를 상징하고 오른쪽은 자그레브를 상징함.

크로아티아의 NATO 가입을 앞두고 2008년 5월, 크로아티아 최초로 미국대통령(부시)이 방문하여 연설한 장소로도 유명함.



<플리트비체>

1949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약 3만 ha의 넓이의 호수공원. 총 16개의 호수가 층층 계단을 이루고 각 호수는 약 90개의 폭포로 연결되어 장관을 이룸.

또한, 석회침전물을 생성하여 1200 여종의 희귀식물들이 자생함. 7세기부터 사람이 거주하였으며, 세상에 알려진 시기는 15세기 경임.



< 주요 관광지 >



<두브로브닉>

“아드리아해의 진주”로 불리는 두브로브닉은 13세기경 건설된 중세시대 백색 도시. 당시 베네치아의 경쟁자로서 상업 도시로 발전했으며 현재 아드리아에서 가장아름다운 도시로서 UNESCO에 등재

시가지는 1940미터 길이의 석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 축성은 13세기에 디자인되어 17세기에 완성



<스플리트>

스플리트는 크로아티아의 제2도시(인구 약 20만명)로 중부 달마시아 지역의 경제, 행정 중심지임.

로마제국의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궁전을 건립했으며 궁전 사방에는 4개의 대문이 있고 16개의 타워로 축성되었는데 그 모양새가 로마군 캠프와 유사



www.kotra.or.kr